

음식 준비부터 식사까지: 추석 명절 가정 내 안전사고

2021-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기반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집, 명절에는 응급실 직행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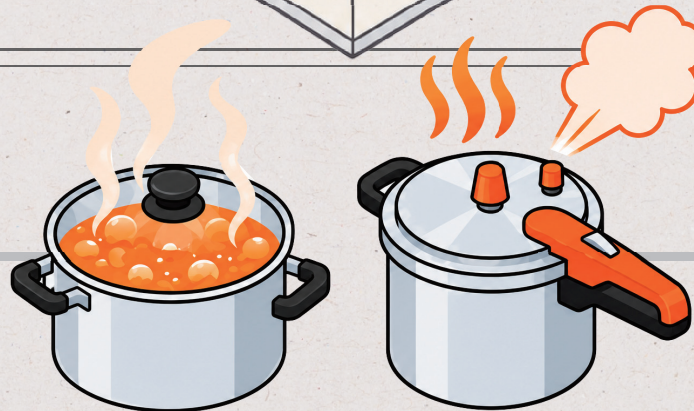
전체 화상 사고의 77.4%,
베임 사고의 42.8%가 '주방'에서 발생



1

베임·찔김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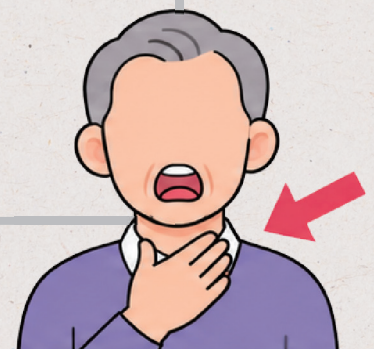
하루 평균 42.3건
(평소 대비 1.9배)



2

화상 사고

하루 평균 8.9건
(평소 대비 2.2배)



3

기도폐쇄

하루 평균 0.5건
(평소 대비 1.7배)

명절 하루의 타임라인을 따라 주방 곳곳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진단합니다.

[준비 및 정리 단계]

숨어있는 칼날, 베임 사고

50대 여성 집중 발생

전체의 17.6% 차지,
평소 대비 50세 이상 발생률 증가

의외의 위험 요인

사고의 41.4%는
설거지 및 청소 중 발생



현장 리포트 01

믹서기를 세척하던 중
날에 손가락 베임

현장 리포트 02

설거지통 안에 있는 칼가위
등을 손으로 집다가 베임

현장 리포트 03

요리 중
채칼에 손가락 베임

[조리단계]

방심하는 순간 덮치는 열기, 화상사고

뜨거운 물체 (26.3%)

달궀진 냄비, 프라이팬 표면

뜨거운 증기 (5.3%)

압력밥솥 증기 등

뜨거운 액체 (64.7%)

국물, 기름, 식혜 등

현장 리포트 01

압력밥솥을 열다가
뜨거운 수증기와 내용물이
뺨에 튀어 화상

현장 리포트 02

전 부치던 중 기름이
발 위로 쏟아짐

현장 리포트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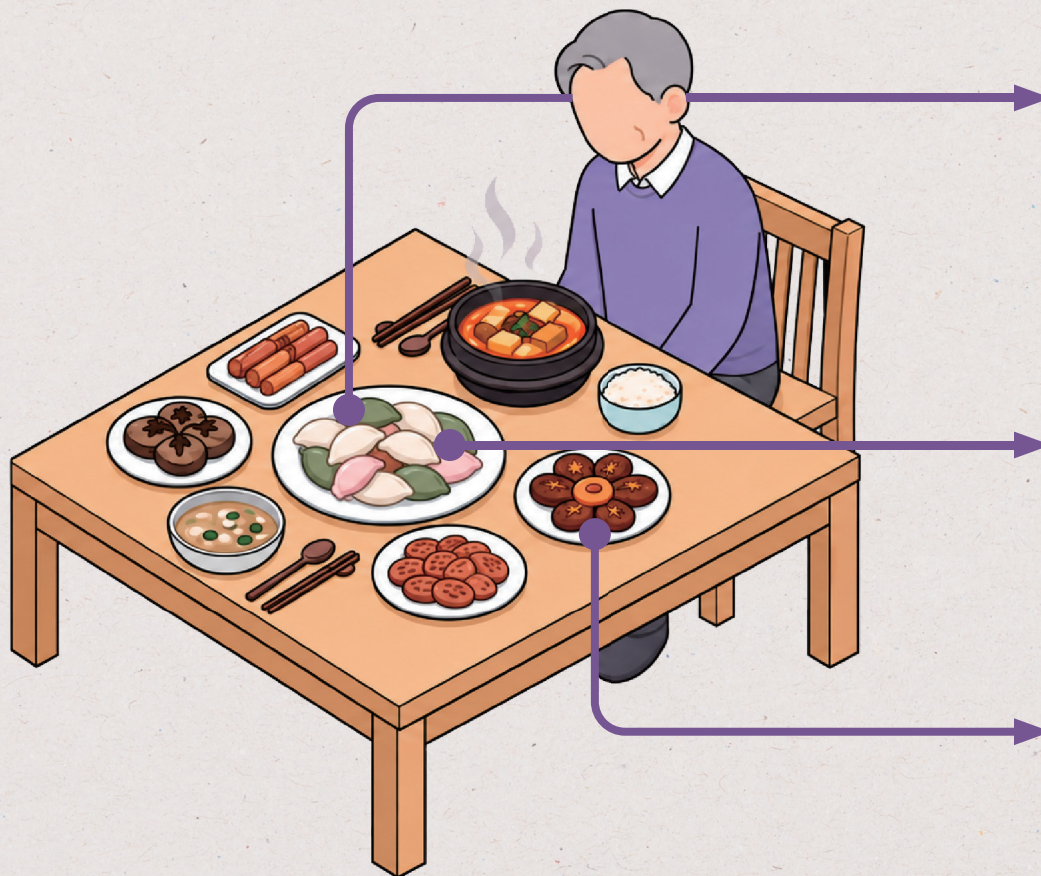
음식을 들고가다가
아이의 몸에
뜨거운 국물 었지름

**화상 환자 중
여자 63.2%**

(평소 56.0% 대비 증가)

[식사 단계]

소리 없는 치명적 위험, 기도폐쇄



EMERGENCY ALERT

발생의
85.7%가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입원을 57.1%
단순 처치로 끝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



현장 리포트 01

평소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가
떡을 먹던 중 목에 걸림



현장 리포트 02

보철 치아가 갈라지며
목으로 넘어가 호흡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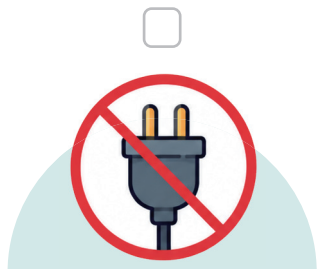


현장 리포트 03

입에 다른 음식이 있는지
모르고 다른 음식을
먹이던 중 질식

사고 유형별 안전 가이드라인

베임 예방하기



믹서기·분쇄기 세척 전
반드시 전원 차단



설거지통 안에 있는
칼·가위·유리제품 주의하기



술병이나 통조림 캔
개봉 시
날카로운 단면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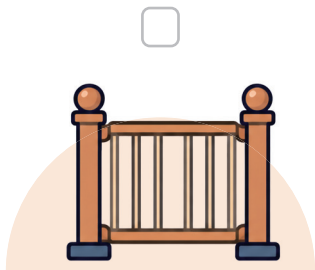
화상 예방하기



압력밥솥·냄비 개봉 시
얼굴을 멀리 유지



조리 중 기름이나
물에 의한 미끄럼·넘어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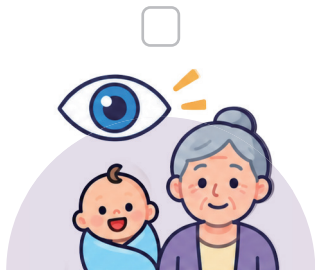


어린이는
조리공간(화기주변)
접근 제한

기도폐쇄 예방하기



음식(특히 떡, 고기)은
작게 잘라 천천히 섭취



영유아 및 고령자는
반드시 보호자 관찰하에 식사

성인 및 1세 이상 소아 기도 이물 제거법

1단계 등 두드리기



환자의 등(날개뼈 사이)을 손바닥 밑부분으로
5회 강하게 두드립니다

2단계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



환자 뒤에서 양팔로 감싸고,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사이에 위치
.....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쥐고,
위로 쓸어 올리듯 강하게 5회 밀어 올림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훑어내기를 시행하지 않는다
의식을 잃으면 구조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1세 미만 영아 기도 이물 제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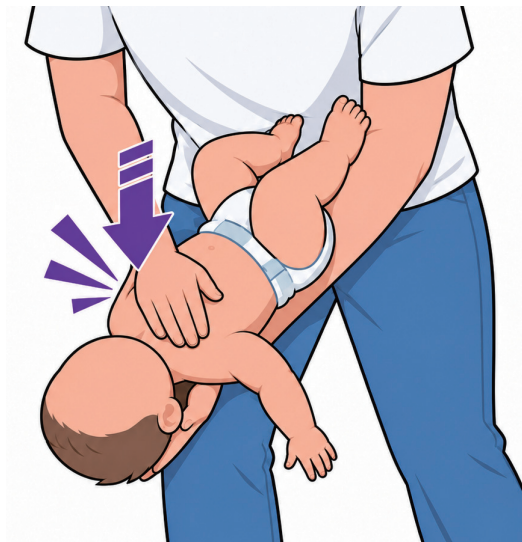
영아는 내부 장기 손상 우려가 크므로 복부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1단계 등 두드리기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한 자세로
등(날개뼈 사이)을 5회 두드리기

2단계 가슴 밀어내기



환아를 뒤집어 머리를 낮게 유지한 후,
양 젖꼭지를 이은 선의 바로
아래 중앙을 한 손 손꿈치로 5회 압박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훑어내기를 시행하지 않는다
환자가 반응이 없어진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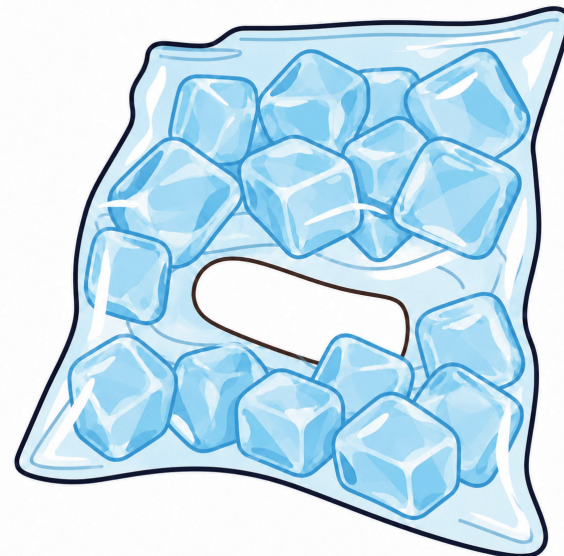
화상·베임 응급처치 방법

화상 처치



-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 화상의 깊이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다.

베임 처치



- » 1-2분간의 압박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5분 동안 더 압박한 후 심각한 출혈의 경우에는 119에 신고한다.
- » **절단된 상처** 면은 무균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외부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싼다.
- » **절단된 신체 일부분**은 젖은 무균거즈나 깨끗한 천에 잘 싸서 비닐봉투에 넣고 이 비닐봉투를 얼음주머니에 다시 넣어 차갑게 유지하여 보관하고 이동한다.

가족을 향한 세심한 배려가 가장 훌륭한 안전 수칙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응급실이 되지 않도록,
추석에는 요리할 때 **한번 더 주변을 살피고** 부모님과 아이들의
식사속도를 지켜봐주세요